

 더불어 민주당 홍보위원회 2026. 10. 8.(목)	보 도 자 료		
	담당: 민주당티비준비TF	연락처	TF단장 한웅현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10. 8.(목)

37분은 짧았다...민주당 유튜브 '민티07' 방송시간 60분으로 연장

- 12일부터 개편...60분 생방송으로 확대하고 3부 코너 통합
- 패널·게스트 섭외 범위 넓혀 민주진영 다양한 목소리 담는다

더불어민주당이 당 공식 유튜브 채널 '민주당티비'의 대표 프로그램 '민티07'을 개편한다.

민주당은 시청자 의견을 바탕으로 프로그램 구성과 운영 방식을 개선해 오는 12일부터 개편안을 선보인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방송시간 확대다. 기존 37분이었던 생방송을 60분으로 연장해 시청자들의 방송시간 확대 요구를 반영한다.

기존 오후 2시에 별도 녹화방송으로 공개하던 3부는 확대된 60분 생방송에 통합한다. 문화·경제·역사 등 기존 코너 중심의 구성에서 벗어나 새로운 소재와 형식의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출연진 구성에도 변화를 준다. 1부에는 당 대변인단 등 주요 인사가 출연해 당의 정책 방향과 주요 현안을 설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주요 현안에 따라 출연진을 탄력적으로 구성해 당의 입장을 명확히 알리고, 당 대표 일정 등으로 직접 출연이 어려운 경우에도 당의 공식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3부는 패널과 게스트의 섭외 범위를 넓혀 정치권뿐 아니라 경제·사회·문화 등 각계 인사를 초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민주당티브의 콘텐츠 외연을 확장하고 다양한 관점과 목소리를 담아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개편을 바탕으로 민주당티브를 당내 소통 채널을 넘어 민주진영의 폭넓은 의견을 아우르는 ‘통합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김남준 홍보위원장(인천 계양을 국회의원)은 “시청자 여러분께서 방송시간을 늘려달라는 의견을 많이 보내주셨고, 이를 가장 먼저 편성에 반영했다”며 “앞으로도 시청자 여러분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보고 싶은 방송, 기다려지는 방송을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끝>